

김관영 도지사, 민생 행보 본격화

독거노인부터 경로당까지, 겨울철 취약계층 위한 전방위 대책 가동... 난방비 지원 확대 · 응급안전 점검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겨울철을 맞아 취약노인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김관영 도지사가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파와 에너지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전주시 진북동의 독거노인 가정 두 곳과 익산 철도관사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의 겨울철 생활환경과 안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전주시 진북동의 한 독거노인 가정을 찾은 김 지사는 난방기와 주거시설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화재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김 지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세심히 살피며 “어



전북자치도는 19일 겨울철을 맞아 취약노인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김관영 도지사가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르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익산 철도관사마을을 경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난방 시설과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1월 겨울철 취약노인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며 주요 대책으로는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통한 안전확인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한파대비 건강수칙 안내를 통한 겨울철 건강관리 지원 △취약노인 가구와 경로당의 난방시설 및 안전설비 점검 등이다.

특히, 경로당 7,109개소에는 기존 국비 지원에 더해 도비 월 16.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더욱 두텁게 돕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장에서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더욱 강화해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연말 맞아 풍성한 볼거리 · 놀거리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20일부터 25일까지 연말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 프로그램은 체험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여 즐겁고 행복한 연말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체험관에서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전시가 펼쳐지며,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가족 단위 대상으로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요리·창작 등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연말을

주제로 △2025년 달력 만들기 △디폼트리 만들기 △나도 산타 케이크 만들기 △바크초콜릿 만들기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또한,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산타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현장 참여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더하여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이만수 전북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이번 특별프로그램은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연말연시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통해 많은 가족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UAM 실증 서비스 기반 구축 최종보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도내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UAM 실증·서비스 기반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도내 현안에 맞는 UAM 서비스모델 및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교통·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초기 서비스모델 검토 △관련 인프라 구축안 제시 △UAM 산업 육성 정책 수립 등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용역 결과, UAM 초기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최적 후보지로는 교통취약지와 공공의료망을 연결하는 익산역-전북대병원-진안군의료원 및 익산역-전북대병원-남원의료원 노선이 검토됐다. 중장기적으로는 관광형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새만금공항, 고군산군도, 위도까지 노선을 확장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는 교통·의료 취약지 해소와 더불어 관광산업 활성화는 두 가지 목표를 통해 미래형 도심항공교통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서울 코리야나 호텔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새만금이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적극 알렸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설명회’ 개최

전북자치도, 스마트 수변도시와 크루즈 관광 · 새만금 연계 개발 청사진 제시... 투자 유치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서울 코리야나 호텔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새만금이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적극 알렸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새만금에 투자를 계획 중인 호텔, 골프장 등 관광개발 사업자와 건설사, 부동산 개발사, 컨설팅사 등 19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주요 관계기관도 함께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남북·동서도로,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

만,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 등 교통인프라를 강조하며 새만금의 개선된 투자 환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공모 중인 관광레저용지 R7 지역과 재공모를 앞둔 R8 지역,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주요 투자 지역과 인센티브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만 개발에 맞춰 추진 중인 크루즈 관광 계획 등 연계 관광 자원도 주목받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새만금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행정적

지원과 기반 시설의 적기 공급, 파격적인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이번 투자설명회로 새만금에 대한 정보와 사업에 대한 신뢰도 생겼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새만금은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며, “오늘 제시된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만금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수행기관 선정

창해복지재단, 도내 190명에게 돌봄 제공 · 이용자 만족도 높아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창해복지재단’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공모 절차를 거쳐 수행기관을 새롭게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창해복지재단은 시범사업 당시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선정됐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가족에

게는 휴식의 기회를, 이용자에게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해복지재단은 3년간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도는 지난 1년 반 동안 해당 사업을 통해 도내 190명의 발달장애인(2023년 30명, 2024년 12월 현재 160명)에게 총 602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재이용률이 60%에 달하는 등 이용자와 보호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은 이용 7일 전까지 전북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714-2610) 또는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838-5200)로 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전혀 사실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9일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며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선거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전국 의 약 1만7800개 (사전)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에 약 34만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 및 투·개표 장비의 사소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제21대 국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했다.

/뉴시스

전주시 공고 제2024-3027호

분묘개장공고(8차)

「삼천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의한 사업 소재지 분묘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분묘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지목	분묘기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549-12	묘지	376기

2. 개장사유 : 삼천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3. 공고기간 : 2024. 12. 20 ~ 2025. 3. 20(3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매장자와 연고자와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제적등본 등) 하여 삼천3동 주민센터에 신고(공고기간 내 신고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장소 : 전주시 완산구 봉취팔위로 1705-138 전주시승화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완료 후 동일 지번 내에서 공사진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및 유골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8. 신고처 : 전주시청 회계과 (☎63-281-2273)

2024년 12월 20일 전 주 시 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